산업도시 안산의 어제와 오늘을 본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안산은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제 개발의 일환으로 계획된 신공업도시로, 뿌리산업, 전기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제지인쇄산업 등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낸 오랜 역사가 숨 쉬고 있다. 어촌마을이었던 안산이 산업도시로 거듭나기까지는 주요 공단인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시화MTV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안산의 산업사와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찾았다.

글·사진 김효정

메이드인 코리아, 인사이드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오래된 버스 한 대가 눈앞에 보인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앞에 서 있는 버스는 새한자동차에서 만든 BF101 모델이다. 1977년부터 1991년 단종 때까지 총 37,000대가 생산된 버스로, 튼튼한 내구성과 우수한 엔진 동력, 연비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1980년대 안산시에서는 관내 버스 업체들이 시내, 시외, 관내 버스로 운용하기도 했다. 1990년대 미얀마로 수출했던 버스는 다시 역수입되었고, 지난날 반월공단과 안산, 안양을 오가던 33번 노선 시내버스로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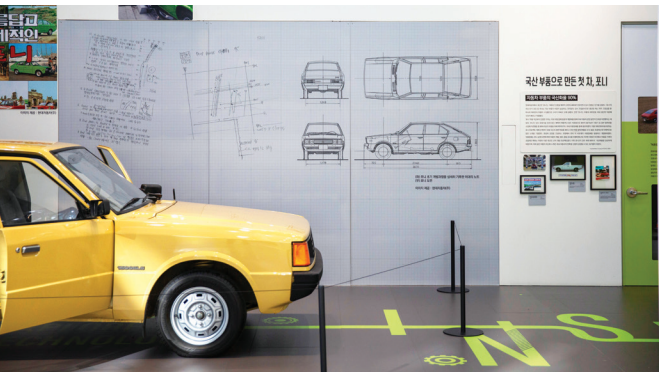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면, 1층 로비 오른편으로 기획전시실이 보인다. 오는 6월 1일까지 '인사이드카(INSIDE CAR)'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주제로, 자동차를 이루는 국산 부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자동차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뤄진 복합체로, 기계, 철강, 전기, 전자, 비철금속, 섬유와 같은 여러 산업이 함께 공존한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완성차 제조사는 6개사,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8,828개사였다.

전시실 안쪽으로 산업용 로봇 HX165가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다. 자동차에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로봇의 움직임만으로 흥미가 생긴다. 관람 동선을 따라 들어서면 '수입차이지만 국산차입니다'라는 섹션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나라 초기의 자동차 기술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 기술이었다. 1915년 서울 정동에서 미국산 자동차 영업소 '모리스 상회'를 운영하던 모리스가 우리나라의 열악한 도로 사정에 자동차 고장이 잦아지자, 자동차 정비공장을 만들었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자동차 '시-발'의 사진과 인쇄 광고물도 보인다. 전시실에서 눈에 띄는 전시품은 단연 1975년에 만들어진 신진 지프와 1980년대 생산된 포니2 픽업트럭이다. 노란색 포니는 장난감 차를 연상시킬 만큼 심플한 구조다. 포니는 국산 부품으로 만든 첫 차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남달랐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도시와 공업

2층으로 올라가면 상설전시실을 만날 수 있다. 상설전시실은 총 3개의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공간은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만들어진 신도시 안산의 역사를 소개하고, 40여 년 동안 이어온 산업단지의 생명력을 짚어본다. 산업도시 안산의 탄생은 반월 신공업도시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빠른 산업화 전개로 도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 해소, 산업 분산이라는 수도권 정책에 따라 반월벌 일대는 신도시로 재탄생했다.



전시관에는 반월 신공업도시 도시설계와 반월공업단지 공장배치, 안산의 산업이 시기별로 정리되어 있다. 산업의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에서 일하는 기업인과 노동자의 인터뷰 영상도 산업의 생존력을 느끼게 했다.

두 번째 구역은 한국의 산업과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 안산의 산업을 이야기한다. 미래 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은 인력으로 불가능한 노동을 대신 수행하고, 제조의 정밀화, 고속화, 첨단화를 이끈다. 안산의 근간이 된 뿌리 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를 소개하고, 각종 기계와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인 기계산업도 전시하고 있다. 마지막은 제지인쇄산업과 섬유염색가공산업, 화학산업의 성장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안의 제지인쇄산업체에서는 골판지, 라이너, 골심지 등 다양한 종이 원료와 우유 팩과 같은 식품 위생용 종이상자와 포장 용기를 생산했다. 동아출판 안산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인쇄 출판 기계인 형압기, 활판인쇄기, 활자주조기, 재단기 등이 전시되어 있어 시선을 붙든다.

조금 더 일찍 봄을 맞이하는 시간

유니스의정원 보타닉하우스로 발길을 옮긴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지만, 마음만은 이미 봄이라 푸른 식물과 꽃이 그리웠다. 이곳은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정원이 있고, 겨울에도 초록의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는 실내 정원,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공방,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카페가 있다. 1층 실내 정원에서는 장 줄리앙의 아시아 최초 식물원 전시인 '식물의 학생들' 展이 열리고 있었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아티스트 장 줄리앙은 회화, 일러스트,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의상, 설치, 도서,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분야의 경계를 두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한다. 푸른 정원 안에서 그들은 식물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모습으로 식물원을 감싸안고 지켜본다. 유니스의정원 곳곳에 전시된 그의 작품은 이질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식물, 공간과 어울리며 유쾌한 느낌을 준다.

그대로 돌아가기에는 아쉬움이 남아 김홍도미술관으로 향한다. 미술관 앞에는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커다란 호랑이 조형물이 서 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김홍도는 19세까지 안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문인화가 표암 강세황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18세기 안산은 화가와 문인, 학자의 주요 활동 장소로 지방 문화예술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김홍도미술관에서는 도화서 화원이 되어 정조대왕의 신임을 받았던 김홍도의 풍속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도화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관청인데, 그는 21세의 나이에 영조 임금의 즉위 40주년과 71세가 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담은 <경현당수작도>를 그렸다. 29세에는 영조 어진과 당시 세손인 정조의 초상 도사 작업에도 참여하며 뛰어난 재능과 솜씨로 인정받았다. 미술관 내부에는 유년 시절부터 최고의 화가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생애 전반을 소개하고, 대표 작품인 <씨름>, <행려풍속도>, <포의풍류도>, <옥순봉도> 등이 전시되어 있다.

info.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관람시간
09:00 - 18:00
(입장마감 17:3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관람방법
개인: 자유관람
단체관람: 인터넷 예약신청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5(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문의
031-369-1694